

“세월을 꽃 피워낸 당신께 이 꽃을 달아드립니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동성초교 합동 어버이날 기념행사

전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오영석)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하고,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내 관계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60세 이상 어르신 1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카네이션 전달, 포토존 운영, 떡 선물 전달, 레크리에이션 및 경품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

램이 진행됐다. 참가 어르신들은 정성 가득한 선물을 받고 공연을 즐기며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부산동성초등학교의 후원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동성초등학교 학생들이 고사리 손으로 직접 제작한 카네이션을 행사 포토존에 함께 구성해 세대 간 나눔과 공감의 의미를 더하는 시간이 되었다.



부산진구립 남성합창단 어버이날 기념 공연

가족사랑요양병원서 ‘찾아가는 합창 나눔 음악회’

부산진구 남성합창단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산 가족사랑요양병원에서 ‘찾아가는 합창 나눔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지역 내 복지시설과 공공시설을 직접 방문해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는 재능나눔 활동의 하나로 마련됐다. 특히 어버이날을 맞아 시설 이용자들에게 감사와 공경의 마

음을 전하고 따뜻한 위로의 시간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합창단은 ‘과수원 길’, ‘안동역에서’ 등 대중에게 친숙하면서도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곡들을 열창하며 관객들과 깊은 교감을 나눴다. 공연을 관람한 어르신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문의 : 문화체육과 예술계(605-4631)



재향군인회, 어버이날 맞아 참전유공자 위문

부산진구 재향군인회(회장 노재현)는 5월 7일 부산진구 내 6·25 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장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위문 행사와 오찬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추진됐으며, 올해로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은 특히 참석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해마다 참석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예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노재현 회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예우와 위문 활동을 계속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계(605-4318)

부산글로벌빌리지 ‘양말목 카네이션’ 전달

(사)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정애) 부산글로벌빌리지 자원봉사캠프(캠프장 강혜령)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5월 7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양말목 카네이션 브로치’ 300개를 제작해 부산광역시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관장 박성일)에 전달했다.

부산글로벌빌리지 자원봉사캠프는 10명의 캠프지기들이 탄소중립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활동에 참여한 한 캠프지기는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께 기쁨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허명희 이사장은 “지역 내 어르신을 위한 활동에 많은 자원봉사자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해 주고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더욱 확산되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자치과 구민협력계(605-4854)

개금1동 자원봉사캠프, 사랑의 간식 나눔

(사)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개금1동 자원봉사캠프(캠프장 정유진)는 어버이날을 맞아 5월 9일 홀로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간식 전달 및 안부 묻기 활동’을 진행했다. 개금1동 자원봉사캠프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 매월 1회 지역 홀로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안부 묻기 및 건강 체크(혈압, 혈당)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번 활동은 동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청년나잇게일 봉사동아리 대학생 캠프지기 22명이 샌드위치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홀로 어르신 댁에 전달했다. 이들은 혈압, 혈당 측정 등



건강 체크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특히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이웃회(회장 이옥천)’가 장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나눔 활동으로 의미를 더했다. 활동에 참여한 한 캠프지기는 “오늘 하루가 어르신들께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